

2026년 전반기 공군 현장지휘관 회의 개최



공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오산 기지에서 '2026년 전반기 대대장 회의'를 개최하고 굳건한 영공방위 대비태세를 결

의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최초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차준선 작전사령관이 동시 참석한 가운데, 비행·미사일방어 등 최일선 현장지휘관 90여 명이 전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1일 차에는 안보상황 공유 및 지휘여건 개선을 위한 참모총장과의 소통 시간이, 2일 차에는 특기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비행단 최초 항공자원정비대대 신설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4월 15일 비행단 최초로 정비정비대대와 부품정비대대를 통합한 '항공자원정비대대'를 창설했다. 이로써 16전비는 항공기 정비대대를 포함한 2개 대대 체제로 개편돼 정비체계 중심의 임무집중형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번 창설로 야전 정비기능이 단일화됐으며, 예하에 항공정비지원반을 신설해 장비와 자재를 통합 관리하며, 기존 정비 인력 편제도 재조정해 업무 효율



성을 크게 높였다. 초대 대대장 홍성우 중령은 "정비 업무 전 영역의 혁신을 이뤄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예로운 54명의 신임 조종사 탄생



제1전투비행단은 5월 13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5-2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1년 10개월의

강도 높은 훈련을 완수한 54명의 신임 조종사들은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았다.

이날 참모총장상은 고현준·강전영·박문호 중위가 차지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승겸 중위, 친형들의 뒤를 이어 조종간을 잡은 문성현·최우석 중위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신임 조종사들은

향후 기종별 훈련을 거쳐 일선 대대에 배속되어 조국 영공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공군 방공포병, '미사일방어' 병과로 새출발

국방부는 5월 7일 공군 '방공포병' 병과의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명칭이 미사일 요격이라는 주 임무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은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라는 전략적 요구를 직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1991년 공군으로 전군된 방공포병은 2022



년 '미사일방어사령부'로 조직이 개편된 데 이어 병과 명칭까지 일원화하게 되었다.

은혜 깊은 공군, 스리랑카인 '추방 위기'서 구출



다에 빠진 조종사를 신속히 구조하는 의로운 활약을 펼쳤으나, 최근 그가 체류기간 만료와 건강 악화 등으로 강제 추방 및 생계 단절의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공군본부 정훈실과 법무실 인권나래센터가 즉각 법무부에 루완 씨의 특별한 공로를 입증하며 구제를 요청하였

고, 공군의 이러한 노력 끝에, 루완 씨는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전액 면제받고 합법적인 체류(G-1)와 취업자격을 취득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한 이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공군의 확고한 메시지가 위기에 처한 영웅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

우리 공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종사의 목숨을 구했던 이방인의 은혜에 보답하며 진정한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지난 2022년 8월, F-4E 전투기 해상 추락사고 시, 제주도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스리랑카 국적 루완 씨는 낙하산 줄에 엉켜 바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 실시

한국 공군이 주도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가 4월 10일부터 2주간 광주기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공군 주도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F-35A, F-15K 등 우리 군과 미 공군·해병대의 핵심 항공전력이 대거 참가하였다.

양국은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통하여 현대전 양상에 맞춘 4·5세대 전투기 통합임

무 검증과 강도 높은 실전적 교전 절차 숙달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었다.



공군, AI 기반 첨단전력으로 미래전장 주도 계획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5월 13일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40여 년간 영공을 수호해 온 F-5 전투기를 내년 말 이전에 퇴역시키고,

실무에 도입한 공군은 첨단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도하며 스마트한 미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산 전투기 KF-21로 완벽히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대 초까지 AI 기반 긴급표적처리체계인 '한국판 MSS'를 전력화하고, 2040년대에는 AI 조종사를 탑재한 무인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미 전군 최초로 자체 생성형 AI '에어워즈(AirWARDS)'를

제5공중기동비행단, 35년 무사고 금지탑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이 1991년 3월부터 약 35년에 걸쳐 '27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5비는 지난 5월 13일 비행안전 시상식을 개최해 공군참모총장 부대표장을 수상하며 이를 기념했다.

이번 성과는 중동 교민 대피 작전 '사막의 빛' 등 고난도 장거리 해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가운데 달성되어 의미가 각별하다. 강근신 5비 단장은 "선배 전우들이 쌓아온 무사고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군, 제28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공군은 5월 14일 연세대에서 ‘AI 대전환의 시대, 항공우주력의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제28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군이 주최하고 연세대 항공우주전략 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

석해 AI 첨단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으로 국가 항공우주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포럼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6월 9일 교내 안중근홀에서 ‘인공지능(AI) 파일럿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주제로 제26-2차 항공우주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사관생도를 비롯해 미국 안드루, KAI, 대한항공,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등 국내외 방산·항공우주 분야의 민·관·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파일럿 및 MUM-T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한 우리 공군의 역량 강



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진오 학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도들이 첨단기술 역량과 올바른 가치관을 겸비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군, ‘2026 공중투하대회’ 성료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작전지속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2026 공중투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5·15비행단 소속 항공전력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전·평시 고립된 아군에게 군수품을 신속히 보급하는 실천적 역량을 겨뤘다.

참가 요원들은 실전과 똑같이 부여된 상황에서 가상의 지대공 위협에 플레이어를 투발하며 고고도 침투를 완수했고, 저고도 비행에서는 공정통제사



(CCT)의 정밀 유도 아래 화물을 목표지점에 오차 없이 안착시켰다.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공군은 5월 26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정예화 교육훈련을 마친 333명의 신임 장교들 중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이상경 소위가 수상했다.

이번 임관식에는 화제의 인물도 풍성했다. 공군병과 부사관을 거쳐 e-MU 제도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세 번째 군번을 부여받은 김창연 소위, 스키 국가대표 출신의



박성윤 소위, 3대째 공군 가문을 이은 성유진 소위, 육군 장교 복무 중 항공전력의 중요성을 느껴 재입대한 김윤성 소위 등이 조국 수호의 명예로운 길에 동참했다.

‘2026 공군 인공지능(AI) 발전 콘퍼런스’ 개최



공군은 6월 23일 공군호텔에서 역대 공군참모총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산·학·연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공군 인공지능(AI)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

했다. ‘AI, 공군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 동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손석락 참모총장은 “AI는 모든 전장의 핵심 기반이며, AI 기반 지휘통제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조기 전력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고, 이날 전군 최초의 내부망 구축형 생성형 AI ‘에어위즈 3.0’을 비롯해 임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최신 AI 정보체계가 시연되며,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든든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13비행교육대대, 26만시간무사고 대기록 달성



공군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교육대대가 5월 18일 ‘26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1983년 8월부터 42년 8개월에 걸쳐 수립

된 이 기록은 거리로 환산 시 지구 둘 2,803바퀴 돌 수 있는 1억 1,232만 km에 달한다.

이번 대기록은 국산 기본훈련기 KT-1에 탑승한 비행대장 목종필 소령과 학생조종사 장현규 중위가 비행을 무사히 마치며 달성됐다. 목

소령은 “모든 임무 요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장 중위는 “정진하여 뛰어난 조종사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군집드론 대응훈련 최초 실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6월 23일 서해 훈련장에서 최초로 ‘군집드론 침투 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저고도로 기습하는 군집드론 50기를 상대로 발칸 화망사격을 통해 44기를 격추하고, 휴대용 레이저와 샷건으로 잔여 6기를 완벽히 제압했으며, 훈련을 주도한 남형주 정보작전처장(대령)은 이번 훈련 성과를 토대로 군집드론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현대전의 신



종 위협에 대비한 우리 공군의 확고한 영공방위 능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故 김도현 중령 20주기 추모식 거행

2006년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장렬히 산화한故 김도현 중령(공사 44기)의 20주기 추모식이 5월 13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거행됐다.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인이 몸담았던 블랙이글스 후배 조종사들이 현충탑 상공에서 추모비행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1,300여



명의 관람객을 지킨 고인의 희생을 기리며, 손 총장은 “모든 공군인은 살신성인의 정신을 계승해 영공수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4월 28일 김대중센터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손정문 지부장이 제12대 지부장으로 연임 인준되었다. 특히 공군 제1전투비행단 신기영 감찰 안전실장을 비롯해 다수의 원로 회원이 참석하여 선후배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6일에는 광주공원 현충탑 주변 정화 활동을 펼친 뒤 순국선열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를 가졌고, 13일에는 제1전투비행단 지휘관 및 참모진과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최원규)는 5월 18일 회원 간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춘계 골프대회 및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는 강릉기지 체력단련장에서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이어 시내에서 열린 2부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원규 지회장은 최근 꾸준히 입회하고 있는 신규 회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회원 100명 달성을 목표로 지회 활



성화와 회원 영입에 다 같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4일, 회원 42명이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청남대를 방문하는 호국안보견학을 실시하였다. 조국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을 운영하는 제17전투비행단에서 최첨단 항공기의 임무와 역할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참석 회원들은 공군의 일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에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군산지회

군산지회(회장 최성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3일 오전, 은파유원지 충훈탑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충훈탑 주변의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하고 경관을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봉사에



나선 전우회원들의 노고에 유원지를 찾은 많은 시민들 역시 따뜻한 격려와 호응으로 화답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진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24일, 지부장 및 임원 10명이 UN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참전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이에 앞서 6월 10일에는 공군 김해기지는마체력단련장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부장배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끈끈한 전우



애를 다지며, 지부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 임원 14명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3일 제3훈련비행단 부대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3호비 단본부를 방문해 부대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납고에서 KT-1 항공기 탑승 체험을 진행하며 현역 시절의 감회를 되새긴 후 비행단장과 함께 오찬을 함께 했다. 한편, 사천지회는 무더위 속 장병들을 위해 생수 600병을 위문품으로 전달했으며,



3호비 측은 부대 상장이 새겨진 기념 모자를 선물로 화답하며 뜻깊은 행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5월 8일 경기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육군 제1보병사단 주관으로 거행된 ‘제77주년 육탄 10용사 추모식’에 참석하여 1949년 5월 개성 송악산 일대에서 고지탈환작전을 수행하다 장렬히 전사한 영웅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였다. 공군전우회에서는 중앙회장의 조화를 조치하였으며, 인천지부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고인들의 위훈을 기리고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였다.



전주지회

전주지회(회장 최석수)는 5월 2일, 15명의 회원이 여수 향일암 등 여수 일원에서 춘계 야유회를 실시하며 상호친목 및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석수 회장은 지회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주 모여 전주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다소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수의 멋진 풍광과 분위기에 만족한 회원들은 주기적인 만남과 화합을 다짐하였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강형근)는 5월 2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딘 헤스 대령 제1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였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한 미영사, 미 7공군 관계자, 제주도 주요 기관장, 한미 장병 및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제주지부장은 전우회를 대표하여 헌화와 참배를 실시하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위국헌신 정신을 기렸다. 올해 추모식은 손글씨 공모전 시상식, 추모편지 낭독,



한미 군악대의 합동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 후 회원들은 참모총장과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창원지회

창원지회(지회장 김춘식)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 회원을 김해기지로 초청하여 ‘영호남 친선 교류 행사’를 가졌다. 손정문 회장과 유종호 이사장 등 12명의 광주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접견을 시작으로 부대 현황 브리핑, 공중급유기 및 수송기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양 지부·지회는 친선 골프와 만찬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선물을 교환하며 화



합의 시간을 가졌다. 기지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을 보낸 광주지부 회원들은 이튿날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

공사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 개최



공사총동창회는 4월 18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임관 10·20·30·40·50 주년을 맞은 동문과 가족 등 1,100여 명을 초청해 ‘2026년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순직자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참모총장 환영사, 생도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24기 동기회의 다양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빛냈다.

김진오 학교장은 “동문들이 이뤄온 헌신은 공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미래 전장에 대비할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정예 장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군항과고총동창회, 장학기금 전달



달인 6월을 맞아 과천·이천·영천 호국원과 대전·서울 현충원을 순회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배 및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회장 김진홍)는 5월 15일 공군본부를 방문해 손석락 참모총장에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이어 공군 주임원사에게 ‘잇-다 리 더십’ 책자를 증정하고 공본 지역 동문간담회를 여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9일에는 제3미사일 방공여단을 찾아 여단장을 접견하고 장병 위문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전공상유공자회, 춘계 안보현장 견학 실시



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태)는 지난 5월 12일, 춘계 안보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西五陵)을 방문했다. 서오릉은 조선 시대 5개의 왕릉이 모여 있는 사적지로, 우리 역사의 숨

결이 깊이 깃든 곳이다. 이날 회원들은 선조들의 열이 서린 역사적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군인터넷전우회, 창립 26주년 총회 개최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 이종근)는 5월 16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석현 초대회장(병 165기, 탤런트 현석)과 홍석제 초대 사무총장(병 233기)을 비롯해 전국 20개 지부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중앙회와 골프회가 뜻을 모아 공군 부사관 자녀 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00년 5월 창립된 로카피스는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변함없는 공군 사랑과 전우애를 실천하고 있다.

부사관전우회 16전투비행단 위문



을 담아 “단 한 치의 빈틈이나 사고 없는 안전한 부대, 최상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정예 비행단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각별히 당부했다.

부사관전우회(회장 차주성)는 4월 6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영공방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생수 5,000병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날 차주성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후배 장병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선배 전우로서의 애정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제38대 회장 연임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제38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향군은 4월 13일 제82차 정기전국총회를 열고 원격 투표를 통해 신 회장을 선출했다. 대의원 37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72.8%(273표)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신 회장은 지난 4년간의 재무 구

조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육군3사관학교(6기) 출신인 신 회장은 “안보와 보훈이라는 깃발 아래 1,100만 회원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당선 각오를 밝혔다.